

기다림의 미학



고 석

『학력사항』

-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 육군사관학교 제39기 졸업(독일어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Scholar

『경력사항』

- 現)법무법인(유) 세종
- 現)International Society for Military Law & Law of War (유엔자문기구) 이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 육군본부 법무실장 (병과장)
- 육군 준장 진급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 국방부 검찰부장
- 국방육군본부 검찰관
-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I. 글머리에

내가 과연 합격기를 쓸 만큼 공부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만, 공무원의 보직을 수행하면서, 몸에 이상(異常)을 안고서,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볼까 하는 충성심에서 용기를 가지고 펜을 든 것이다. 동생이 군대를 마치고 고시방법론을 물어왔을 때 정리해 보았던 내용을 조금 보충하여 두서없이 적어보았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오래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기다리며 모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신념은 기적을 낳는다.”는 경구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육사입교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악몽에 시달리시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알 수 없는 상대와 심한 언쟁을 하시곤 하였다. 할머니는 밤마다 고함을 지르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지시곤 하던 할아버지의 이마와 등에 고인 땀을 닦아 내리시며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시곤 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은 연민

으로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결코 정신병자가 아니었으며 동리 밖에서도 존경 받는 어른이었다.

내가 좀 더 컸을 때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징용되어 갖은 고초를 겪으셨으며 악몽을 꾸실 때마다 싸우던 말은 일본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코흘리개 시절의 이런 충격적인 체험은 학교선생님의 역사시간의 가르침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몸도 불편하셨다. 당연한 결과로 어린 시절은 유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무도 자상하신 어머니와 두 누님 덕택에 우리 가정은 늘 단란한 하루를 보내곤 하였다.

세월이 흘러 고3이 되었을 때 나는 가족들 모르게 육사에 입학원서를 냈다. 어머니는 처음엔 13대 종손을 국가에 바칠 수는 없다고 반대하셨으나 누나들의 도움과 내 뜻에 따라 흔쾌히 동의 하셨다.

육사에서의 4년간의 생활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 하기 힘든 그러한 초인적인 극기력을 요구하였다. 정식생도가 되기 전의 가입교 단계에서 받는 짐승훈련(West Point에서는 Beast training이라고 한다), 지겨우리만치 잡다한 교과과정, 칼날 같은 규율과 내무생활, 24시간 계속되는 상급생의 끊임없는 지도, 2천여 회를 초과하는 각종 시험, 땀으로 범벅이 되는 무도시간, 오뉴월에도 예외 없는 긴 구보, 방학 기간 동안의 고된 군사훈련, 젊음이 없이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간이었다. 생도생활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 누님들의 격려는 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독립심을 키워라”

“부국강병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여자를 멀리 하라”

“황금을 돌같이 하라”

“근신하라”

“극기하라” 등

달을 바라보며 눈물지으면서 누나의 사랑을 가슴에 꼬옥 묻어 안아 보면서 나는 신앙처럼 누나가 보낸 편지 한장 한장, 글자 한자 한자를 가슴에 새기곤 하였다. 그리고 '83년 초 자랑스러운 육군소위로 임관했다.

전방의 생활은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다. 생도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나 자신만 해결되면 되는 것인 반면, 소대장의 생활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24시간을 소대원과 막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했다. 돈은 쓸데가 없어 막사 보수와 소대원의 회식비로 모두 충당하였다. 수면이 부족하여 몸무게가 7,8kg씩 빠져도 하루하루가 그렇게 뿌듯하고 보람찰 수가 없었다. 그런 중에서도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군인이 되려고 힘썼다. 소대장 보수교육기간에는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잘 넘어가지도 않는 밥(짬밥이라고 함)으로 배를 채우고 영어회화학원에 가서 회화공부를 하였고 100km행군 중에서도 내 군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에는 독일어 성경이 들어 있었다.

III. 수험생활

내가 고시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주 우연이었다. 전방생활 3년째 접어들 즈음 생도시절 존경했던 교수님께서 육사교수 요원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식을 주셨다. 평소 남을 지휘한다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들다고 여기고 있었던 터라 “지휘이론”(leadership theory) 석사과정은 나에게 극복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장차전을 지휘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와 합리적인 부대지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수일을 선배장교들을 찾아다니며 면담을 거듭한 끝에 교수요원선발시험에 원서를 제출했다.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민간대 위탁교육 시험 준비에 한창일 때 갑자기 내가 이수해야 할 과목에 변경이 생겼다. 상부의 인원소요관단과 그 밖의 우연한 사정 때문이었다.

1985년 촌 소정의 시험을 거쳐 S대 법대 2년에 편입했다. 면접을 담당하신 학장님과 교수님들께서 마음 깊이 격려해 주셨으나 대학생활의 경험이 없는 나에겐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학교에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최루가스, 학생들이 외쳐대는

“군부독재타도”

“군사문화 철폐”

등의 구호, 같은 젊음이끼리 편을 갈라 한쪽은 화염병, 한쪽은 최루탄으로 전쟁을 치루는 장면 등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늘 구군가 내 등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죄인이 된 기분으로 수개월을 보냈다. 형언할 수 없는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도장에 가서 샌드백도 쳐보고 90kg씩 나가는 바벨로 종일 벤치프레스를 하다 보면 달이 유난히 곱게 떠오른 날은 빵과 우유를 사들고 관악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특정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 원망을 되뇌며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다.

그러나 이즈음 나는 재수를 하는 여동생과 자취를 하고 있었으므로 나의 그런 약한 모습을 동생 앞에 보일 수는 없었다. 중위월급이라야 20여만 원 정도가지고 두식구의 숙식비, 책값, 독서실비 등을 대러니 간장에 맨밥을 비벼먹어야 하는 날이 적지 않았다.

2학기가 되자 더 이상 경제적으로 버틸 힘이 없어진 나는 아무런 대책 없이 여동생을 누

나덕으로 보내고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다. 인간이 기거하기엔 너무 좁은 방, 삭막한 분위기 등 그곳은 인간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버티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몇몇의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2년 말이 되자 주위에선 Study Group이 결성되고 방학공부계획에 분주하였다. 나는 복학한 동년배 3명과 고시원을 떠나 개인 집으로 공부장소를 옮겼다. 그곳에서 기본 3법을 처음으로 1독했다.

3년 초가 되자, 강의실의 자리가 많이 비워지고 학생들의 움직임이 민첩해졌다. 1차과목의 종류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료들을 따라서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시험 결과는 커트라인보다 무려 10점 이상 모자라는 점수였다. 경제학, 선택과목 및 역사과목이 무방비 상태였다.

3년 2학기 어느새 나는 한 소녀와 깊은 사랑에 빠져있었다. OBC(소대장 보수교육) 교육시절 영어회화 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인연으로 시작되어 3여 년 동안 300여 통의 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답하지 않던 그녀가 2년 겨울쯤 내게 소식을 주기 시작한 이후 우리는 편지로, 전화로, 마주보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 내가 소위 임관 후 광주에 갔을 때 당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1년생이었던 그녀를 영어회화학원에서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온통 그녀의 포로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2주일에 한번 정도 광주에 내려갔으며 2,3일에 십여 페이지의 긴 연서를 보내곤 했다. 그것은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유일한 연애였다.

기본3법의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법학이 딱 논리적이고 생각보다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대분위기는 고시와 전혀 무

관한 사람조차 고시에 빠져들게 하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 4년 초 1월 새해 계획을 세우고 1차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1, 2주에 한 번씩 광주나 대전에서 그러는 만나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하려고 애썼다. 3년제 영어가 80점을 상회하였으나 독일어가 더 자신 있어 독일어로 바꾸고 국제사법을 선택했다. 내가 확보한 시간은 3개월여 동안 5, 6시간 정도였다. 책상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그것은 대견스러운 성과였다. 결과는 평균 2점정도 부족한 점수로 특히 민법 경제학 역사과목이 80점을 훨씬 못 미치고 있었다. 위탁교육을 마치면 다시 전방으로 돌아갈 것인데, 고시에 미련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3년 동안 내 생활의 결산은 참으로 초라한 것이었다. 곧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다. 언제 대학원에 다닐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 미지수였으나 이것이라도 합격하여 체면이라도 유지하자는 욕구가 컸다. 꽤 좋은 성적으로 통과되었다.

88년 초 대학원을 휴학한 채 육사 법학과에 복귀했다. 처음 남 앞에 서려니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고충은 더 심각했다. 유일한 낙은 그녀와 곧 결혼할 수 있다는 기대감뿐이었다. 그리고 88년 12월 25일 나는 29세의 나이로 그녀는 25세의 나이로 서로에게 애뜻한 사랑을 안고서 너무도 아름답게 하나 되어 주위의 축복 속에 힘차게 인생의 첫발을 내딛었다. 농부의 아들, 13대 종손, 조모님 양시부모님의 봉양의 무, 무엇보다도 결혼조건으로는 가장 인기 없는 군인에게 오직 나라의 진실만을 믿어주고, 내게 그녀의 소중한 인생을 내맡겨준 그녀가 너무 고마웠다.

나는 이듬해 윗분들이 귀엽게 보아주신 덕

택에 강사직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고 상부로부터 대학원에 복학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냈다. 이제 뭔가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대학원 복학준비를 하면서 8시간의 정규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면 1차 시험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4개월여 동안 거의 쉬지 못하면서 하루 10시간 정도 확보했다. 시험결과는 아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두 문제 차이의 낙방이었다. 처음으로 약이 오르고 오기가 나기 시작했다. 이를 갈았다.

대학원에 열중하면서 틈틈이 2차 과목을 단권화 및 Subnote도 하면서 공략해 나갔다. 스테디도 하고 싶었으나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기회가 부여될 수 없었다. 1인 3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강철 같은 체력이 약화되는 것을 느꼈다. 틈틈이 나의 취약과목이었던 역사과목을 보충할 의사로 중국과 일본·한국의 근현대사 등을 읽으며 재목의 필요가 있는 곳엔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고, 학원에서 경제학을 수강하였다. 이는 큰 도움이 되었다.

1990년 초 1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1차 준비에 들어갔다. 12시간 이상은 달력의 숫자에 ○표를 하였다. 과목별 시간 안배는 페이지 수에 비례하게 짜고 1일 3과목을 나눠보았고, 원서 접수 이후에는 하루를 2분하여 전반기는 오전시험과목, 후반기는 오후시험과목을 공부하였다. 시험 준비는 대체로 무난히 진행되는 듯 했다. 90년 초 태릉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더구나 26년 전에 지어진 14평여의 영내아파트는 연탄불을 넣기에 너무 위험하여 침대위에 전기장판이 겨울을 나는 유일한 난방 기구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에게 참 고생을 너무 시킨 것 같다. 나는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2평 정도의 북향 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추운

밤에는 코에 고드름이 얼 정도였다. 나는 그런 자학을 즐겼으며 그런 환경은 나의 긴장감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었다. 2월 중순쯤 되었을 때 달력을 온통 동그라미로 채색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학원 수업과 먼 거리 통학시간과 그 밖의 업무시간을 고려하면 실로 초인적인 강행군이였다. 그러다 보니 시간확보를 위하여 아침은 우유 1봉, 점심은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김밥이나 짜장면으로 대우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수면양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추위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도 체력약화의 큰 요인이 되었다. 자타가 강철로 공인하던 나는 2월 하순쯤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2,3일 동안 거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의 의식은 너무도 선명했다.

“이번이야말로 나 자신과의 진정한 승부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자신을 추슬러 보았다. 3일쯤 후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로 어느 정도 회복기미가 있자 아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병원행을 마다하고 공부를 계속했다. 1차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다. 90점에서 조금 모자란 좋은 점수였다. 2차 시험 준비는 기본서 목차를 한번 훑어보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한번 써보는 정도로 임했다. 행정법과 상법이 아주 근소하게 과락이었고 평균점수는 합격점과 거의 경계선이였다.

2차 시험 후에 난 더 바빠졌다. 석사 논문 때문이었다. 120여 쪽의 독일어 논문 2권이 주요자료였는데 시간도 없는데 번역하느라 1991년 초까지 애먹었다. 논문 덕에 2차 시험 준비는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로 복습하는 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1991년 3월부터는 다시 생도들의 강의를

맡게 되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아침이면 얼굴에 부기가 있어 하루는 병원을 찾아갔다. 청천벽력이였다. 의사의 표정에서 심상찮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권위 있다는 서울 대학병원에서였으니까 나의 충격은 너무 컸다.

“공부를 중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의사선생님의 말을 수 없이 되뇌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입원해서 쉬어야 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큰 불행이 온다.”

마치 장난 같은 의사의 협박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으나 내 자신에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되었다. 3월부터 다시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근무시간에는 생도들의 교과와 연관된 헌법과 형법을 공부했고 강의가 끝나면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사무실 책상 위에 코를 박고 잠에 떨어지곤 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하루 10시간씩은 확보되었다. 지칠 대로 지치면 침대 위에 누워서 시간을 채웠다. 내가 고시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주위 분들이 나의 건강을 무척 걱정해 주셨다.

2차 시험도 한양대에서 있었다. 4일간의 휴가를 얻어 월요일날은 50분짜리 2회 강의를 한 수 부랴부랴 짐을 챙겨 누나집에 짐을 풀었다. 첫날은 Subnote로 1회독하고 5기간 정도 잠을 잤다. 컨디션이 최저라서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 청심환을 한 알 먹었다. 점심도 소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쇠고기와 참쌀을 갈아 끓인 죽을 보온병에 담아 와 그냥 마셨으며 식곤증을 없애기 위해 커피를 한잔 곁들였다. 화수목 3일은 Subnote 점검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 잠을 한 시간이상 자지 못하였다. 이리다

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또 떨어지는 아픔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초인적인 힘을 늘 힘들수록 더 솟아났다. 마지막날 형법 case 문제는 주위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신이 났으나 너무 지친 나머지 글씨가 나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게 엉망이었다. 형소법 시험을 마치고 나오며 “제발 다 읽기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다.

모범답안의 내용은 나의 논점과 많은 부분 일치하였다.

발표전날이 되자, 전될 수가 없었다.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누나 나는 00번인데 떨어졌을 거야 확인할 필요도 없어!”라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누나에게 수험번호를 알린 것은 내 스스로 도저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5분 뒤 동료와 드라이브나 같까 하고 있는 차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예감이 있었다. 송화자는 수화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예의도 없이 “야, 너 뻘다. 뻘어!”…… 내 약해진 근육 마디마디가 뜨거운 핏줄기의 힘을 받아 용솟음쳐 뻘쳐오르고 나의 힘을 받아 용솟음쳐 뻘쳐오르고 나 자신을 이겨냈다는 승리감에 흥분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평생 고초를 겪으시다 가신 할아버지, 그러나 언제나 근엄하셨던 그 모습과 할머니, 아버지, 엄마, 누나들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에 열중하고 있을 아내가 보고 싶었다. 한참 후 내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여보 수고했어요”라는 한마디 외에 말을 잇지 못하였다. 건강을 걱정하여 늘 수심에 찬 얼굴로 그 아름다움까지 잃어버린 그녀가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퇴근하여 서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가장 뜨겁고 힘 있는 긴 포옹을 하였다.

IV. 몇 가지 제언

수험생활에 원칙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주어진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시간사용과 부지런한 체력관리, 그리고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나름대로 수험생활의 능률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자기 환경에 맞게 좋은 충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1. 생활습관

건강을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영양, 규칙적인 생활, 일정한 운동, 적당한 휴식 등을 잘 조합하여 리듬 있게 생활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좋다. 지나친 육식은 지구력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면이 있다고 하며 운동은 배드민턴, 족구,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 부담 없는 거시 좋을 듯하고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약화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대인관계는 단순화해야 한다. 이는 합격에 절대적 영향요소이다. Study Group도 능률이 떨어지면 과감히 팀을 교체해야 한다.

공부량의 체크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달력에 체크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2. 기본서, 문제집의 선택

법서는 신림동 서점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구입하면 되고(노장분들은 새 책이 나오면 바꾸는 것을 고려하든지, 보충을 잘 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참고서도 그 책과 대비되는 이론을 전개하는 책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1차 시험서는 기본 3법은 법서 기본서에 문

제집 및 기출문제집 각 1권씩 구입하되 문제집 위주로 선다형의 기술을 터득한다는 저도로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출문제집은 절대적 요소이다.

3. 독서방법

법전을 활용하는 정독을 권하고 싶다. 의의와 제도적 취지를 분명히 숙지하고, 지엽말단적인 것보다 줄거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Subnote를 잘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입체적으로 독서해야 한다. 각 제도 상호간, 각 조문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case를 많이 접하여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강약을 조절하여 능률적인 독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천여페이지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땅과듯하는 방법도 시간이 충분하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필자는 고시 3사의 잡지 5년분을 모아 거기에 나오는 각 대학 중간, 기말, 모의고사 문제를 기본서 제목에 체크하였는데 중요도가 큰 문제는 별표가 10개정도 나왔고, 전혀 시험과 무관한 부분도 많았다.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서의 강약조절이 될 것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논점별 문제의식은 그때그때 동료들과 토론하여 해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암기에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기본개념, 용어를 입으로 소리 내어 완벽하게 외어 두면 시험장에서 아주 유용한 득점권이 된다. 개념만 정확하면 그 개념의 인수분해가 요건이고, 그 인수분해의 결과가 법률효과이므로 모든 출발점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숙제에서 비롯된다. 기본서는 단권화해야 한다. 책을 두껍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충(기

본서의 빠진 논점을 타 교과서, 고시잡지, 문제집 등에서 발췌 연필로 여백에 기입), 체계화(기본서의 일정부분의 체계가 산만한 경우, 독자적인 논리구조로 재구성), 대비(기본서의 주장과 대조하는 학설, 판례의 보충)해놓으면 능률적이다. 단 시험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내용의 근거, 비판을 단순, 명료하게 요약해 두어야 한다. 2차 시험은 단권화 전제하에 기본서 중심의 이해위주 독서가 필요하고 독서계획은 가능한 수준보다 약간 높게 정하는 것이 좋다.

4. 수업, 특강, 학원의 활용

필자는 경제학과 역사과목을 공부한지 오래지나 곤욕을 치렀다. 학원의 적극적 활용이 요망된다. 수업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방학기간의 특강수강은 절대적 요소이다. 특강은 하나의 대학만 선택하여 듣고 나머지 대학의 특강내용은 후일 노트를 구하여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졌는지 정보를 수집하여 놓는 것이 좋다.

5. 정보수집

특강정보, 고시잡지사를 통한 각 대학의 출제경향, 시사성 있는 문제의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과목별 박사과정 학생으로부터 최근 학계의 동향에 대해 물어두면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필자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법의 두 문제를 적중했다. 기출문제도 소홀히 하지 말고 변형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답안작성의 연습

절대적 요소이다. 그룹으로 서로 채점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어떤 답안이 호감을 주는가

체험하게 된다. 답안작성은 체제가 중요하다. 케이스형, 논술형, 약술형 등 각 문제형에 맞는 체제를 익속시켜 놓아야 한다. 특히 논술형과 케이스형은 언제나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보아야 한다. 답안작성은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7. 고시잡지의 활용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범답안은 보통 3년분 정도 참조하나, 욕심이 나면 5년분 정도가 좋다. 특히 강평부분은 꼭 읽어 봐야 좋다. 논문은 발췌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외에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8. 마인드 컨트롤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사람의 능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의지만 강하면 못해낼 것은 없다고 본다. 비판적, 소극적, 수동적인 용어사용은 가능한 절제하고, 긍정적, 진취적, 적극적, 능동적인 언어사용과 태도로 일상생활을 견지함이 좋다. 음악도 청송맞은 내용보다 명량하고 진취적인 것을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 좋다.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잠 잘 때나 길을 때나 하루에 500번씩 중얼거리 보면 한 달 후면 뭐가 달라질 것이다. 술, 담배는 가능한 한 금하고 퇴폐적인 생각은 운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9. 시험에 대하여

1차 최종 정리 시에는 D-2쯤에 기본3법 법조문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외국어 주요문법 및 단어장을 한번쯤 훑어보고 당일 날 취침

은 평상시 수준만큼 자야 한다. 문제는 쉬운 과목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답안지에 바로 정답을 표기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2학년 학생도 시험장의 분위기를 익힐 겸 응시해 보는 것이 좋겠다.

2차 시험에서는 당일 밤에 Subnote를 꼭 1회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잠을 너무 줄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글씨는 가능한 한 예쁘고 정성들여 쓰고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가 답안지에 풍겨 나오도록 노력함이 좋다. 시작 직전까지 한자라도 더 보도록 하고, 시험이 끝난 뒤 토론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복귀하여 다음날에 대비해야 한다.

3차 시험에서는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를 처음 대하는 자세로 임하면 족하다. 복장과 두발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른 언어사용과 태도로 또렷또렷하게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된다. 이틀 중 하루는 신상질문, 나머지 하루는 법 과목의 토론을 하는데 답변 못했다고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 여학생은 너무 야한 복장은 자칫 부담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신 있는 사람은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V. 결 언

내가 시험 준비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신념은 기적을 낳는다.”

이 평범한 경구는 진정 우리 주변을 늘 생명을 가지고 떠다닌다. 그것을 취하느냐 마느냐 모든 이의 자유이다.

동도제한 모두의 건투를 빈다.